

# 유커 몰려온 여수, 크루즈 중심지로 뜬다



여수시가 국내 대표 크루즈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여수시는 대형 크루즈선 입항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선 끝에 최근 여수항(여수세계박람회장 크루즈 부두)에 '관광 콘서트'인 대규모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대형쇼핑센터 등 부족한 관광 기반 시설 확충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지난 13일 크루즈를 타고 여수항에 입항한 3400여명의 중국 켈티(KELTI)그룹 임직원들이 여수방문을 기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여수시 제공>

■ 15만톤급 확장 공사 후 첫 대형 크루즈 입항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3400여명의 중국 기업보상관광단이 지난 13일 오전 7시 초대형 크루즈선을 타고 여수항에 입항해 밤 10시 출항 일정으로 15시간 이상 머물렀다.

중국 크루즈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체류시간이 평균 6~7시간 정도라는 점에서 여수가 제주도와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중국 크루즈 기항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싣고 여수항에 처음 입항한 마리나호(13만 8000톤급)는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인 로얄캐리비안사 바하마 선적으로 승무원 1185명에 승선원 3850명의 대형 크루즈선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 여수~일본 후쿠오카를 경유해 상하이로 회항하는 마리나호는 여수크루즈부두가 2014년 말 8만톤급에서 15만 톤급으로 확장공사를 완료해 수준 높은 크루즈 부두(수심 11m, 선외장 600m 확보) 확보한 이후 처음 기항한 대형크루즈다.

중국 켈티(KELTI)그룹 임직원들로 구성된 크루즈 관광객들은 여수문화아쿠아리움과 순천낙안읍성을 둘러보고 여수 박람회장에서 빅쇼 등을 관람한 뒤 일본 후쿠오카로 향했다.

특히 여수시가 대규모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위한 여수 박람회장 내 특산물 판매장과 먹거리 장터를 마련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대규모 쇼핑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실제 여수 방풍초콜렛과 두부과자, 홍삼절편 등은 60%가 넘는 상품 소진율을 보이며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람회장 디지털 갤러리(EDG)에서 펼쳐진 K-pop·국악·사물놀이 등 수준 높은 공연은 중국 요커들에게 전한 감동을 선사했다.



**13만8000t급 크루즈 입항**  
**중관객 3400명 15시간 머물러**  
**역사문화 연계 관광상품 개발**  
**대형 쇼핑센터 유치 서둘러야**

이와 함께 시는 대규모 관광객의 입출국 수속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여수세관, 검역소 등과 맞춤형 통관서비스 등을 제공해 수준 높은 크루즈 관광 서비스도 구축한다는 평가다.

■ 황금알 낳는 크루즈 관광...1인 평균 70만원 지출  
크루즈 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다. 소비성향이 강한 부유층 관광객이 주로 크루즈 관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한해 국내 크루즈 여객 지출규모는 총 1억1800만 달러(1298억원)이며, 8만t급 크루즈선 1척이 입항할 경우 부가가치는 2억7000만원에 이른다. 2014년 국내에 들어온 크루즈 관광객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경제유발효과도 7500억원이 넘어섰다. 특히 '관광 콘서트'로 통하는 중국인 크루즈선 관광객 1인당 지출 비용이 11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국내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중국 크루즈 유치에 나서고 있다.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단연 제주도다. 크루즈선 한 척이 입항할 때마다 2000~3000명의 관광객이 함께 들어오며 쇼핑에만 1인 평균 7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다.

■ 관광 기반시설 확충은 해결 과제  
여수시도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기반으로 일찌감치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실제 2014년 여수항 확장공사 때문에 관광항을 통해 입항한 중국 크루즈 관광객 1만 6000명이 5일동안 여수·순천·곡성 등지에서 쓰고 간 동안 9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2년 1만6000명, 2013년 2만3000명, 2014년 5만4000명이 방문했던 크루즈 관광객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을 뒤흔든 메르스 여파 등으로 여수항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은 고작 1척 1000여명에 그쳐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수시가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크루즈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크루즈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대형 쇼핑센터 유치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향후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대형 쇼핑센터 유치 등 맞춤형 관광 시설과 통역 등 크루즈 전문인력 집중 육성, 이순신 투어 등 역사문화를 겸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시 지능형교통체계 국가공모사업 선정

여수시가 2017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가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능형교통체계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신호주기 조정과 연동화를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정체나 교통사고 등에 따른 우회가능 정보를 교통전광판(VMS)에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또 교차로 감시카메라와 돌발관리 CCTV, 자가 통신망도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시설물이 노후하고 도로 확장 및 선형변경 등의 도로여건 변화와 관광객 및 방문차량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투자와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여수시는 총 30억원이 투입되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국비 1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19일 "앞으로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최신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해 시민 및 관광객에게 실시간으로 양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 출신 기부천사 박수관 YC-TEC회장

### 올해 추석에도 2억원 상당 장학금·쌀 쾌척

여수출신 기부천사로 지역을 대표해 온 박수관 (수)YC-TEC회장(왼쪽)이 추석을 맞아 올해도 2억원 상당의 지역사랑 장학금과 쌀을 전달했다.



추석맞이 사랑의 쌀 및 장학금 전달식. 박수관 YC-TEC회장이 추석을 맞아 200,000,000원 상당의 장학금과 쌀을 전달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박수관 회장이 명절 전 9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2016년 추석맞이 사랑의 쌀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지역 대학생 50명에게 3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박 회장은 또 여수지역 내 장애인 및 저소득층 742가구와 장애인시설과 고령제전우회 등 16개소 등에 5000만원 상당의 배미(10kg) 250포를 지원했다.

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사업장을 둔 부산과 고향 여수에서 20년 이상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0억원 규모의 각종 사랑을 전하면서 '기부천사'로 불리고 있다.

박수관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내 고향 여수발전을 이끌어 갈 귀한 장학생들을 위해 기본 기준만 충족한다면 졸업 때까지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며 "앞으로 꿈을 잘 이뤄내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내달 17일까지 접수

여수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에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등을 내달 17일까지 여수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신청은 흡연행위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여수시보건소는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건강보존소'(건강을 위해 달리는 보건소를 운영해 혈압·혈당 측정, 영양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금연회말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으로,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광주 남구 진월,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의 중심지**

SH BUILDING

스케일이 다른 가치는 투자자의 특권이 됩니다!

**성황리 분양중**

- 남구 빙고울CC, 노인건강타운과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우월한 입지**
- 심원이 확보해 최고의 조망권 및 노출광고가 확실한 상가 **투자가치**
- 고속특 직군의 인적 유입 및 소비증대로 수익증가 **미래가치**
-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제시할 수 없는 위치대비 할터의 분양가 **고객가치**

문의 062) **676-4006**  
**010-5681-4015**

빛가람로 전면부에 위치

## 비전타워 7~8층

## 파격 분양 및 임대

- 나주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메인도로변이라 광고효과 최고!
- 지상 11층, 지하 3층까지의 넉넉한 주차공간, 각종 병·의원 및 업무시설 입점
- 입점 내과 성업중이며, 피부과 치료등 11월 오픈예정!
- 병의원 침상이 이동 가능한 엘리베이터 완비

● 7층 전용면적 453평 / 8층 전용면적 453평 (전체 면적도 가능 / 1칸씩 분양 및 임대도 가능)

**권장업종**

- 넓은 객실을 요하는 한방병원
- 이동 전문병원
- 업무용 사무실

분양가격 및 계약기간, 임차가격은 협의가능하며 매수인과 임차인 의견 적극수렴 합니다.

**비전공인중개사 박주연 010-4141-5300 / 061)335-0002**